

2020년도 제38회 문화재수리기술자 1차 국가자격시험

교 시	종 목	문제형별	시험시간	시 험 과 목
1교시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실측설계기술자	B	55분	문화재관련법령 한국건축사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자 유의사항 】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시험과목 중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2. 시험문제지 표지와 시험문제지 내 문제형별의 동일여부 및 시험문제지의 총면수, 문제번호 일련 순서, 인쇄상태 등을 확인하시고, 문제지 표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답은 각 문제마다 요구하는 가장 적합하거나 가까운 답 1개만 선택하고, 답안카드 작성 시 시험문제지 형별누락, 마킹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 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5. 감독위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카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시험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1. 수험자는 QR코드를 통해 가답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설문조사 필수)
2. 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축하 SMS(알림톡)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수험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가답안 확인

문화재관련법령

1. 문화재보호법령상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가 화재 및 재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지정문화재 중 분묘
- ② 등록문화재 중 건축물
- ③ 지정문화재 중 콘크리트조 건축물류
- ④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 안에 있는 석조건축물

2. 문화재보호법령상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 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해당 문화재의 수리를 명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수리 명령을 관리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그 수리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수리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④ 수리 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문화재보호법령상 외국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보호되는 문화재를 보호 대상으로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외국문화재의 국내 반입이 불법반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당 반출국이 조약상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때까지는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없다.
- ③ 문화재청장은 외국문화재를 유치하면 그것을 박물관 등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④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된 외국문화재라 하더라도 해당 반출국이 그 문화재를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문화재보호법령상 문화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기념물 ② 보호물 ③ 문화재자료 ④ 국외소재문화재

5. 문화재보호법령상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을 지정할 때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보호구역을 조정할 때에는 조정 후 매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그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④ 인위적 조건의 변화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6. 문화재보호법령상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손실이 아닌 것은?

-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리·보호를 위하여 그 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의 금지를 한 경우 이를 이행함으로써 받은 손실
- ②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직접 행한 장애물 제거 조치로 인하여 받은 손실
- ③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를 하는 공무원이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한 발굴로 인하여 받은 손실
- ④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한 자가 그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받은 손실

7. 문화재보호법령상 건설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수목을 식재하는 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수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 ④ 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8. 문화재보호법령상 시·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으로서 신고 대상인 행위의 기준을 설명한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은?

-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해당 문화재가 터널·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 내부의 표면적의 (㉡)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① ㉠: 2, ㉡: 2 ② ㉠: 3, ㉡: 2 ③ ㉠: 4, ㉡: 2 ④ ㉠: 4, ㉡: 4

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및 현장의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수리업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문화재수리 보고서에는 수리대상의 현황, 실측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출받은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가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우에도 고증·양식·문화재수리의 기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자문할 수 없다.

1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문화재수리기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자는 기술 종류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에게 중복하여 취업할 수 있다.
-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문화재수리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자재의 규격에 관한 사항
- ㄴ.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에 관한 사항
- ㄷ. 문화재수리등의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 ㄹ.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1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문화재수리업의 양도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은?

-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의 양도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① ㄱ: 10, ㄴ: 20 ② ㄱ: 10, ㄴ: 30 ③ ㄱ: 20, ㄴ: 30 ④ ㄱ: 20, ㄴ: 60

1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문화재수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의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그 능력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 ③ 발주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는 없다.
- ④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설계도서대로 문화재수리를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혼축성(混築城): 2년 ② 산자 이상의 너와지붕: 3년
- ③ 구조철물: 3년 ④ 고인돌: 5년

1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 | |
|-------------------|-------------------|
| ㄱ.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 ㄴ.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정지 |
| ㄷ.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 ㄹ.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정지 |
| ㅁ.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 |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1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상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발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유적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도 발굴할 수 있다.
- ② 연구 목적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해당 문화재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부담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공공목적에 필요한 경우라도 폐사지(廢寺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는 없다.
- ④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한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여 문화재청과 손실을 받은 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손실을 받은 자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1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상 매장문화재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공해에 매장되어 있는 모든 유형문화재
- ② 하천에 생성되어 있는 천연동굴
- ③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유형의 문화재
- ④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상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와 소유자는 공동으로 소유한다.
- ② 발견신고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③ 발견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견신고자로부터 해당 문화재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발견자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보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④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18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별도의 절차없이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1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상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민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 ③ 「고등교육법」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 ④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2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상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하는 개발사업으로 미리 관할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흙쌓기 또는 지하 땅파기를 수반하는 사업
 ㄴ.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에서 골재 채취를 수반하는 사업
 ㄷ.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에서 골재 채취를 수반하는 사업
 ㄹ.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수선을 수반하는 사업
 ㅁ. 수물을 수반하는 사업
-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ㄷ, ㄹ, ㅁ
2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령상 고도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화재청장이 고도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한 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다.
 - ②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소유의 토지는 주민지원사업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③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 안에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해당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자가 있으면 이주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령상 보존육성지구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유형이 아닌 것은?

-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 ② 택지의 조성
③ 수목을 심는 행위 ④ 도로의 신설

2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령상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에 대한 인정을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는?

- ① 보유자가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② 보유자가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를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보유단체가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정기조사 결과 전수교육조교의 기량이 인정 당시보다 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

2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령상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전수교육조교가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보조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보유자는 명예 보유자로 인정된다.
- ② 명예보유자 인정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한다.
- ③ 명예보유자 인정에는 보유자의 연령 및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실적이 고려되어야 한다.
- ④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문화재청장은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한국건축사

26. 고려시대의 건축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고려시대 건축 기술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벼슬은 무관계 정4품 당상관이였다.
- ㄴ. 공주 마곡사 5층 석탑은 라마교의 영향을 받았다.
- ㄷ. 주두에 굽받침이 보이지 않는 건축물로는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조사당, 성불사 응진전 등이 있다.
- ㄹ. 풍수지리사상은 고려 초기 도성이나 이궁 건립에 영향을 주었다.

- ① ㄱ,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27. 시대별 건축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삼국시대 사찰에는 주불전 내부에 마루를 깔고 불상을 가급적 실내 뒤편에 모셨다.
- ② 고려시대 주심포계 건축물은 천장이 개방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 ③ 17세기로 넘어가면서 익공은 하나의 독립된 구조형식으로 정착되었다.
- ④ 조선 후기 다포계 건축물은 출목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인다.

28. 조선시대 주거 건축문화의 형성과정과 특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6세기 왕족과 권신들의 주택은 가사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 ② 양란 이후 17세기 사대부의 씨족마을 내에서는 종가나 사당이 마을을 지배하는 중심이 되어 위계질서를 이루었다.
- ③ 17세기 후반 이후로 주자가례에 입각하여 주택 내에 가묘를 설치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또한 사랑채를 중심으로 하는 남성공간의 위상은 높아졌다.
- ④ 19세기 초기에는 도시에 상인과 농촌에서 광작농민의 세력이 점차 커지자, 기존 지배 세력인 양반주택은 장식성이 약화되고 씨족마을의 형성이 늦추어졌다.

29. 원시 주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석기시대 후기에는 원형이나 말각방형 평면 외에 장방형 평면이 나타났다.
- ② 하남 미사리의 신석기시대 전기 주거는 여(呂)자형태의 평면을 보인다.
- ③ 청동기시대 주거지에는 벽체가 출현하였다.
- ④ 고상식 건축은 철기시대에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30. 고대 분묘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송산리 고분군의 전축식 무덤구조는 백제 사비시대 분묘건축의 특징이다.
- ② 평양 천도 이후 축조된 고구려 봉토분에서 모줄임천장(귀접이천장) 구조를 볼 수 있다.
- ③ 경주 금관총과 금령총은 신라시대 돌무지덧널무덤 중 단곽묘이다.
- ④ 통일신라시대의 분묘형식은 봉토에 12지 호석을 두르고 부각(浮刻) 또는 원조(圓彫)로 장식하였다.

31. 20세기 초 지어진 건축물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용산역사는 르네상스풍의 석조 건축물이다.
- ② 경성 조선은행 본점은 르네상스풍의 벽돌조 건축물이다.
- ③ 서울 경운동에 세운 천도교 중앙대교당은 서양식 건축물이다.
- ④ 수원역사는 르네상스풍의 벽돌조 건축물이다.

32. 조선시대 관방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변사는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감독하는 기능을 지닌 청사로 궐외각사이다.
- ② 조선후기 동래읍성, 해주읍성, 청주읍성의 축조는 임진란 직후인 17세기 초에 시행되었다.
- ③ 향청은 수령 다음가는 관아라 하여 이아라고도 하며, 조선초기에는 유향소라고 하였다.
- ④ 감영은 각 지역의 관찰사가 정무를 보는 청사로 감영의 출입문은 포정문이라 불렀다.

33. 근세 도시의 성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구증가와 상업활동의 증가로 성문 밖에도 활발한 시장이 형성되었다.
- ② 18세기말에 이르면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에 따라 도시의 영역이 확장되고, 성곽 바깥으로도 민가들이 들어섰다.
- ③ 조선 후기 ‘경기감영도’에 의하면 사대부집과 서민집들이 계급에 따라 여전히 별도의 영역에 자리 잡고 있다.
- ④ 물산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살림집을 개조한 상점이 생겼다.

34. 자연적으로 형성된 계곡을 적절히 이용하여 여러 채의 작은 정자를 자연스럽게 배치한 것은?

- ① 광한루원 ② 소쇄원
③ 한개마을 한주정사 ④ 주합루와 천석정

35. 조선왕조의 종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묘정배향공신(廟庭配享功臣)의 신위를 모신 공신전은 정전에만 설치되었다.
- ② 신위를 모신 사당은 정전과 영녕전인데, 공로가 적은 임금의 위패는 처음부터 영녕전에 모셔졌다.
- ③ 신실(神室) 안에는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만을 모셨을 뿐 옥새나 책은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 ④ 묘에 신위를 배열하는 순서는 태조때부터 서상제(西上制)에 의거하였다.

36. 17세기 양란이후 산지에 위치하는 소규모 불교건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마당을 중심으로 불전과 전각, 누각으로 둘러싸인 중정형 가람배치가 시대적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 ② 누각은 마당쪽으로 연결된 공간으로 휴식처로도 사용되었다.
- ③ 사찰의 주불전은 극락을 관장하는 아미타불을 주존으로 모신 대웅전을 중심으로 건축되었다.
- ④ 외부에서 거행되었던 불교의례행사는 불전 내부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37. 조선시대 단·묘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의 사직단은 도성의 사직단을 따라 2개의 단을 조성하였다.
- ② 환구단(원구단)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고종연간에 초창하였다.
- ③ 각 지방에는 예제와 관련된 일정한 시설인 성황단과 여단을 설치하였다.
- ④ 전주 조경단은 왕실의 시조제를 지내는 곳으로 예제가 보편화 된 조선 중기에 조성하였다.

38. 전통 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맹씨 행단의 대청 바닥은 우물마루이고 방바닥은 전체가 온돌로 되어있다.
- ② 고성 어명기 고택은 ㄷ자형 겹집구조로 정면 4칸, 측면 3칸에 외양간을 부엌 앞으로 돌출시켰다.
- ③ 하회마을 양진당은 ㄱ자형 안채의 동측면 북쪽에 一자형 사랑채가 덧붙여져 있다.
- ④ 함경도지방의 양통집 정주간은 정지와 칸막이 없이 연결된 하나의 공간이다.

39. 건립시기가 가장 늦은 근대 건축물은?

- ① 독일영사관 ② 벨기에영사관 ③ 영국공사관 ④ 프랑스공사관

40. 조선시대 마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성리학 원리에 따라 조성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위계가 높을수록 마을 전면에 위치한다.
- ② 안동하회마을의 대표적 가옥은 관가정, 겸암정사, 충효당, 수졸당이다.
- ③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의 풍수 형국은 연화부수형이다.
- ④ 종가는 일반적으로 마을의 중심이거나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41. 전통건축의 기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진 무위사 극락전은 혼합식기단이다.
- ② 여주 신륵사 극락보전은 장대석기단이다.
- ③ 덕수궁 석어당 기단 바닥에는 방전을 깔았다.
- ④ 봉정사 대웅전은 장대석 기단이다.

42. 건축물과 가구형식의 연결이 옳은 것은?

- ① 안동 봉정사 극락전 - 1고주 9량 ② 연탄 심원사 보광전 - 2고주 5량
- ③ 강진 무위사 극락전 - 1고주 9량 ④ 경산 환성사 대웅전 - 1고주 9량

43. ‘내진원주, 외진방주’ 형식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 ① 경북궁 강녕전 ② 창덕궁 대조전 ③ 창덕궁 주합루 ④ 창경궁 통명전

44. 온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방 전체에 구들이 깔리는 것은 조선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 ② ‘장갱(長坑)’, ‘화갱(火坑)’, ‘육실(燠室)’은 온돌과 관련된 용어이다.
- ③ 불목(부넙기)은 열기가 고래로 잘 빨리 들어가게 하는 기능을 한다.
- ④ 양주 회암사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구들 유적이 확인되었다.

45. 전통건축 담장 및 굴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담장은 거주자의 사회적 신분에 의해 의장을 달리하며, 양동(梁棟)은 궁궐담장의 특징이다.
- ② 경북궁 교태전 아미산 육각 굴뚝의 면에는 4가지 이상의 무늬를 가지는 부조판을 배치하였다.
- ③ 연가(煙家)는 굴뚝 상부에 비가 들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흙으로 구운 집모양의 장식을 의미한다.
- ④ 창덕궁 석복헌 장식담장에는 부귀를 상징하는 박쥐문양이 새겨져 있다.

46. 다음 건축물 중 종단면상에서 대청 가구구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강화 정수사 법당
ㄴ. 영주 부석사 조사당

ㄷ. 안동 개목사 원통전
ㄹ. 황해도 성불사 극락전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47. 이음과 맞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엇걸이산지이음은 기둥을 이을 때 자주 사용하며, 창방을 이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턱솔맞댄이음은 일정한 곡선을 유지하는데 효율적인 이음이다.
③ 맞장부이음은 수직력과 수평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④ 나비장이음은 도리이음에 주로 사용하며, 동바리이음에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48. 건축물과 내·외부 가구 부재에 사용된 단청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창덕궁 부용정 - 굿기단청 ② 나주향교 대성전 - 모로단청, 굿기단청
③ 양산 통도사 약사전 - 가칠단청 ④ 경복궁 강녕전 - 금모로단청

49. 전통 창호 및 대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합 중 가운데 광창을 달고 위아래는 벽지를 발라 빛을 차단하는 독특한 창을 연창이라고 한다.
② 걸창은 살대를 엮은 형태로, 부엌에서 연기를 배출하기 위해 열리지 않게 만든 창이다.
③ 영쌍창은 가운데 문설주가 있는 쌍창으로 오래된 방식이다.
④ 대문간이 한 칸으로 된 것을 단간대문 또는 사주문이라 한다.

50. 근대 건축기술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9세기 중반 이후 사찰의 조성에는 승려 장인이 점점 사라지고 대부분 민간인 장인이 일을 맡았다.
② 소성기술의 발달로 흑회색 벽돌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흑회색 벽돌이 의장요소로 사용될 수 있었다.
③ 무기 공장 건축물인 번사창과 서양식 주화를 제조하는 전환국 건축공사는 한국인 기술자가 담당하였다.
④ 수원화성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서양식 벽돌조 건축공사에 한국인 기술자들이 대거 참여하였다.